

전시명: 박대성: 고결한 먹과 현대적 붓
 전시 기간: 2022년 7월 17일 - 12월 11일
 장소: 레스닉 파빌리온 (Resnick Pavilion)



작품 관련 사항은 3페이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 2022년 5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ACMA)에서 <박대성: 고결한 먹과 현대적 붓> 전시를 선보입니다. 이 전시에는 현대적 주제를 서예를 보는 듯한 선으로 동서양의 미학을 담아 그려낸 화가의 대형 수묵화가 조명될 예정입니다.

일제 강점기가 종식을 향해 가던 1945년에 태어난 박대성(朴大成) 화백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수묵화 작가로 꼽힙니다. 5세부터 그림을 독학으로 배운 박 화백은 수백 년 전 전설적인 중국과 한국 수묵화 거장들의 화풍을 완벽히 구사하는 능력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박 화백은 그의 그림의 미학적 기초가 되는 한자(중국 문자)의 의미를 찾아서 중국에서 머물며 실크 로드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그만의 독창적이고 기백이 넘치면서 열려있고 개념적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작품으로 완숙하였으며, 그의 시각적 진화는 “전통미술”과 “현대미술” 등 양분화를 뛰어넘습니다.

LACMA의 한국 예술 부문 부큐레이터인 버지니아 문 (Virginia Moon)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시는 방문객들이 박 화백의 산수화에 몰두하는 동안 잠시 시간을 잊게 해주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견고한 돌다리와 그 옆에 흐르는 개천의 병렬 배치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황소 뿔이 맞부딪히는 소리나 투박한 찻잔을 통해서이든지, 박 화백의 작품에서는 속세에서 그 소재들에게 내면의 힘을 주는 자연의 힘을 드러냅니다. 신중하게 그어진 붓 자국 하나하나가 박 화백 자신의 표현입니다.”

LACMA의 CEO이자 윌리스 아넨버그(Wallis Annenberg) 디렉터인 마이클 고번(Michael Govan)은 “LACMA가 박 화백의 작품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작품들은 한국 산수의 절경을 표현하는 한편, 박 화백의 열정적인 아시아 여행과 동서양 예술 연구의 영향을 절묘하게 조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전시회를 통해 한국 예술을 로스앤젤레스와 외부 방문자들에게까지 공유하기 위한 장기간의 헌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대성: 고결한 먹과 현대적 붓>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박 화백의 서예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선을 보여줍니다. 박 화백은 붓 하나로, 현대적 소재를 전통적 기법으로 그려내며, 이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은 그의 필체를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 화백은 특히 대형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박 화백 작품은 다양한 주제와 기법, 크기를 아우릅니다.

이 전시에는 한지에 먹으로 그린 작품 8점이 전시됩니다. 대형 작품 여섯 점과 함께 비교적 작은 작품 두 점으로 박 화백의 다양한 예술적 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금강산(2004)은 북한의 명산인 금강산맥을 그린 작품으로서 박 화백이 몇몇 현대 화가들과 그곳을 직접 방문하여 보고 기억한 모습을 고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위에서 내려다 보는 풍경으로 그린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박 화백의 걸작 중 하나인 불국사 설경(1996)에서 그는 티 없는 설경의 순수성을 표현하기 위해 한지(한국 전통 뽕나무 종이) 본래의 흰색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극사실적 화법의 조선백자, 또는 붓질 하나에서 모습이 드러나는 새처럼 하나의 소재를 그린 그의 소형 작품은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놓치기 쉬운 극히 작은 부분을 조명합니다. 이 때문에, 그의 작품이 한국 문화와 예술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및 민족적 배경에 관계 없이 쉽게 이해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문과 브리타 에릭슨 박사의 글이 실리고 LACMA가 발행한 책자 또한 이 전시와 함께 준비되어 LACMA 내 상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 하이라이트

금강산, 2004

금강산맥은 현재 북한에 위치한 산맥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추앙 받는 산 중 하나입니다. 한반도 분단 전 조선왕조(1392-1910)부터 화가들은 금강산을 사실적이고 전통적 기법으로 표현하며 그 산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상상을 통해 재창조된 이 산수화는 대담하고 역동적인 붓질을 통해 옛 거장들의 기술을 이어 받으면서도 현대적 실험 정신을 끌어안은 박 화백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경주 남산, 2017

남산은 신라 왕조(57 BCE-935 CE)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경주에서 생활하는 박 화백은 이 작품에서 아시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 등 문화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건축물과 조형물을 한데 그려 넣고 물결 모양의 추상적 스타일로 형태와 화법의 거장다운 기량을 보여줍니다.

불국사 설경, 1996

불국사(774 CE에 건설된 국보이며 UNESCO 세계유산 지정)를 그린 이 산수화는 표현 수단에 대한 박 화백의 자각을 잘 드러냅니다. 박 화백은 새로 내린 눈으로 덮인 풍경의 평온과 고요를 부각하기 위해 세필로 빈 공간을 이용했습니다. 박 화백은 뉴욕에 건너가 공부한 뒤 불국사에서 1년간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중 그는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170마일 떨어져 있는 경주에서, 눈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관람객들이 마치 설경에 들어선 것처럼 연상하도록 하는 이 거대한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크레딧:

이 전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에서 주관합니다.

가나아트(Gana Art)의 특별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전시는 삼성문화재단에서 일부 후원합니다.

LACMA의 모든 전시는 LACMA 전시 기금의 승인을 받습니다. 주요 연례 후원자: Meredith & David Kaplan, Kevin J. Chen의 후한 연례 기부, Louise & Brad Edgerton, Edgerton Foundation, Emily & Teddy Greenspan, Marilyn B. & Calvin B. Gross, Mary & Daniel James, Justin Lubliner, Jennifer & Mark McCormick, Kelsey Lee Offield, Jen Rubio & Stewart Butterfield, Lenore & Richard Wayne, Marietta Wu & Thomas Yamamoto.

LACMA에 대하여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LACMA는 전 세계 6천 년 예술적 표현을 조명하는 147,000점 이상의 수집 규모를 갖춘 미 서부 최대의 미술관입니다. 다양한 예술 역사를 전시하고자 헌신하는 LACMA는 지역의 풍성한 문화 유산과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나오는 새롭고 참신한 시각으로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해석합니다. LACMA의 실형 정신은 예술가, 기술자, 선구적 사상가들과 함께하는 작업뿐 아니라, 수집품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개척자적인 사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관람객을 참여시키기 위한 지역적, 전국적, 세계적 파트너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치: 590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36. Lacma.org

이미지 캡션: 박대성 작, 청산백운, 2013, © 박대성, 사진 본인 제공; 박대성, 불국사 설경, 1996, © 박대성, 사진 본인 제공

보도 자료 연락: press@lacma.org

LACMA의 소식을 접하세요



@lacma